

일천궁·당귀·백하수오 시세 급락폭 가파르다

수입개방된 강활·백지는 물량부족으로 상승세

국산한약재 시세가 들쭉날쭉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락 폭 그래프가 가파르다. 햇것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국산 한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천궁, 택사, 백하수오, 일당귀 등 품목은 절반 수준으로 값이 폭락했다. 최근 들어서는 소폭 오름세. 이처럼 급락폭이 큰 원인으로서는 지난해 수량 부족으로 국산 시세가 다소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햇것 출하로 물량 공급이 늘어난 때문.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약재들이 국산과 섞여 혼용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산 시세가 제값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지난해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됨으로서 수입 개방된 강활, 백지, 치자 등 품목은 생산농민들의 재배기피로 올 생산량 감소, 시세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전반적인 상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활이나 독활은 중국산과 기원식물이 달라 식품용 수입약재의 반입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비교적 무관한 품목. 이를 노린 일부 장사군들에 의한 국산 강활과 독활 사재기가 이들 품목의 시세상승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강활 같은 경우 산지에서 장사군들에 의해 사재기된 후 시중에 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어 최근 영천 시장 등지에서 국산 강활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매기 있는 듯 싶다가 11월 말 들어서 부터 경기 부진한 상황. 이같은 불경기는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산 한약재 시세도 내림세 내지는 당분간 약보합세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구기자 내림세. 올 수확량이 작년비 3분의 1정도 수량 증가함에 따라 시세도 근당 (6백g기준) 7천원 선(청양산)으로 근당 9천원 선이던 지난 10월초 시세보다 무려 2천원 폭 하락세 보이고 있다.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산 구기자는 근당 1천4백~1천5백원 선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데 국산 구기자의 시세하락 배경에는 이같은 식품용 반입 수입구기자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구기자 수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올 가을 가뭄 영향으로 구기자 알이 잘아 상품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산지인의 설명이다. 상품은 근당 7천~7천5백원선 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알은 굵지만 색깔이 조금 검은 것은 근당 6천~6천3백원 선에, 질이 조금 떨어지는 물건은 5천5백원 선까지도 거래되고 있다. 진도산도 근당 8천원 선으로 큰 폭 하락했다. 시세는 당분간 약보합세 보일 전망이다.

강활 국산 강활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생산시기 산지에서 일부 장사군에 의해 독점 사재기돼 물량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장 상인들의 설명. 얼마전까지만 해도 근당(6백g 기준) 6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강활 시세가 최근 들어 거의 두배로 꺾여졌다. 11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형성된 시세는 근당 (6백g 기준) 1만5백원(북강활), 1만1천원(남강활) 선으로 지난 10월초 시세인 5천7백원(북강활), 6천원(남강활) 선보다 큰 폭 상승한 것. 강활은 지난 7월1일부로 수입개방된 품목이지만 국내 소비되고 있는 강활 자체가 중국산과는 기원식물이 다른 종으로 국산과 확연히 구별되는 데다 수입개방 영향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틈타 한 몫 잡아보려는

장사군들의 장난에 의한 시세 폭등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귀 지난 10월초 근당(6백g 기준) 6천원 선이던 일당귀 시세는 햇것 출하와 함께 시세 내림세. 11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 3천5백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토당귀도 근당 4천5백원(통), 5천8백원(절) 선으로 지난 10월초 시세인 근당 7천2백원(통), 8천5백원(절) 선보다 크게 하락했다.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기가 꾸준한 품목이지만 식품용 수입약재의 변칙유통 물량이 워낙 많고 국산 당귀에 대한 중상들의 대량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식품용 당귀가 상당량 수입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시세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문동 올 수확량 증가로 물량 충분. 11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시세는 청양산이 근당(6백g 기준) 7천원(거심), 4천5백원(막막) 선으로 지난 10월초 시세인 7천8백원(거심) 선보다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월초 근당 9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밀양산도 11월 말 현

재 근당 시세가 8천5백원(거심), 5천3백원(막막) 선을 형성하고 있다. 매기 부진한 가운데 시세 당분간 보합세 전망되고 있다.

산수유 큰 폭 내림세. 올 산수유 생산량이 지난해 비 증가한 건 아니지만 작년 산수유 풍작으로 재고량이 워낙 많은데다 수확시기 햇것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시세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11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산수유 근당(6백g 기준) 시세는 상품이 9천5백원, 중품이 8천5백원 선이다. 매기 부진한 가운데 시세는 당분간 약보합세 전망이다.

오미자 11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오미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2만5천원 선으로 지난 10월초 근당 시세인 2만원보다 5천원 폭 상승세. 물량이 귀해 2만5천원 시세에도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올 봄 가뭄에 가을가뭄까지 겹쳐 올 오미자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고, 또 식품원료인 생것 상태로 출하되는 비율이 많아 건조 오미자 출하 물량은 극히 제한된 소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천궁 지난 10~11월 중순까지 근당 3천원선까지 폭락했던 일천궁 시세가 11월 말 들어서면서 소폭 오름세. 11월 말 현재 일천궁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3천8백~4천원(절)선으로 근당 5천5백원 선이던 지난 10월초 보다 무려 30% 포인트 하락했다. 산지에서도 근당 3천7,8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물량이 많지 않은 토천궁은 근당 1만4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식품용 수입천궁이 조만간 국내 수입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천궁 시세는 다소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다.

택사 올 생산량 증가로 물량이 많은 택사도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서 하락세 대열에 합류했다. 11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택사 도매시세는 근당(6백g 기준) 3천8백원(통), 4천4백원 선으로 지난 10월 시세보다 1천5백원 폭으로 하락했다. 수입산 택사는 국산과 외견상 구별이 가능해 국산 시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산 택사 시세하락은 국내산 수확량 증가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매기 부진한 가운데 시세도 약보합세 전망. <문>

중국약재 시장동향

중국약재 시장 분포를 보면 안국 약재시장, 광주 청평시장, 옥림시장, 성도 화회지시장, 산둥 순화성시장, 서안시장, 박주시장, 하남 우주시장, 호남 소동시장, 곤명 국화원 시장 등이다. 그 중 하북성의 안국약재시장과 안휘성의 박주약재시장이 중국에서 가장 큰 대표적 약재시장으로 꼽힌다.

안국시장은 중부 이북의 약재들이 많이 모여있고, 박주시장은 남방약재들이 많이 집산돼 있다. 광서 옥림시장은 계곡 등 남방에서 생산되는 약재와 베트남, 라오스 등 변방무역 약재들이 비교적 값싸게 거래되는 상황이다.

햇것 출하로 하락세
O...햇것 수확이 시작되면서 중국약재도 다소 하락세 보이고 있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 품목들은 대표적으로 황기, 산수유, 황련, 천마, 천궁, 백작약, 오미자, 구기자 등이다.

산수유는 kg당 20\$에서 5~6\$로 내림세. 근래 들어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다. 올 수확량이 증가한데다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기는 kg당 1.2~1.3\$로 1.5\$보다 다소 내림세. 수량이 많아서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수요 감소 영향 때문인 듯.

백작약 최저가 형성
O...25\$선이던 자연산 천마도 햇것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다소 내림세 13\$선. 23\$에서 15~17\$ 선으로 하락한 황련도 더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으나 최근 수출물량이 많아지면서 오히

려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 백작약도 1\$에서 0.75~0.85\$ 선으로 하락, 중국 산지에서 근년들어 최저가 형성하고 있으며 천궁도 이달 햇것출하와 함께 시세 오름세 전망되고 있다.

패모 12\$선으로 평중
O...패모, 연교, 관동화, 형개 등은 오름세. 7\$ 선이던 패모는 12\$ 선으로 평중. 패모는 중국 절강지방에서만 한정 생산되는 품목으로 수량도 많지 않지만 상인들의 사재기에 의한 물동량 감소가 원인인 듯. 연교도 1\$에서 1.5~1.7\$선으로 오름세. 지난 겨울 동해로 인한 수량 감소를 우려, 상인들에 의한 사재기가 많았던 품목이다. 3\$이던 관동화도 동해영향으로 인한 수량감소로 시세 오름세. 11월 말 현재 3.8~4.0\$ 선이다. 지난해 시세가

생산원가 이하로 낮게 형성됐던 형개는 생산농민들의 재배 기피로 수확량 감소. 11월 말 현재 0.45\$선으로 0.3\$선에서 다소 오름세다.

천마 수출여가 까다로워
O...천마, 금모구척, 감초, 목향, 후박, 황백 등 몇몇 약재는 중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 한정돼 있는 야생 생약 자원의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허가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간이 한 달은 소요돼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 중국이 WTO에 가입, 이같은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분간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자기들만이 생산하고 있는 독점품목이라는 판단이 서면 시세도 대폭 오를 가능성 있는 품목이다.